

- 인문계열 문항 1 -

인문계 <문항 1>은 현대 정치 위기의 후인 집단간 적대감 등을 분석할 현상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을 배경적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수험생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갈등’과 ‘가짜 뉴스 소비’ 관련 통계 자료를 고교 국어와 사회·문화 교과과정에서 배운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이 문항은 두 개의 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문학작품(제시문 가)와 설명문(제시문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선택적 사실 인식(인지 편향)과 감정온도 관련 표 정보를 분석해서 특정 집단의 성격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에 대한 답안의 경우, 대체로 요약에서는 적절한 답안을 작성했으나 공통점 서술에서 아쉬움을 보였다. 여러 개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들의 특성을 요소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직관적인 공통점은 찾을 수 있지만 숨어 있는 핵심 공통점을 놓치게 된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한다’는 점 말고도 ‘적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핵심적인 공통점을 함께 서술한 답안을 높게 평가했다.

두 번째 논제에서 우수한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 사이의 차이는 대체로 <표> 해석에서 기인했다. 단순해 보이는 <표>에도 수십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 많은 양의 정보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포착하는 능력은 논술 문제에서 필수적이다. <표 1>에서 A와 B 두 집단의 공통점의 핵심은 자기 집단에 유리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았던 데 반해, 집단별 유불리와 무관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정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 핵심 공통점을 정확히 서술한 학생은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대체로 답안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표의 부분적인 내용을 일일이 적은 학생들은 이 문제의 뒷부분 서술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지는 A집단 특성 서술 부분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진술 여부가 등급을 갈랐다.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적기는 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체계적인 진술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 인문계열 문항 2 -

인문계열 <문항 2>는 언더도그마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가>는 유명 화가의 그림에 나타난 “소는 싸울 때 꼬리를 밖으로 빼기도 한다”는 사실과 농부의 “소는 싸울 때 절대로 꼬리를 밖으로 빼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간 판단자가 농부의 말을 쉽게 믿는 일화이다. <나>는 이중섭과 현실의 사진에서 보이는 ‘소가 싸울 때 꼬리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 현장’에 대한 소개이다. <다>는 언더도그마의 개념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를 더 상세화한 글이다.

[문제 1]에서는 <가>일화가 주는 일반적인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가와 <나>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가를 물었고, [문제 2]에서는 <다>의 개념을 요약적으로 기술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즉 둘의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문제 1]은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대답을 하였다. ‘비록 신분이 낮은 자라 하더라도 그 지적이 올바르게 생각되면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할 줄 아는 태도, 현장 전문가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 등이 이 일화 마지막 부분에서 보인 마지막 절의 행동을 통해 뽑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덕목이라 하겠는데 대체로 그 방향에서 기술하였다. 또 <나>에 나타난 사실과 <가>에 나타난 주장의 대립점 - 소의 꼬리 위치 - 을 포착하고 그 중 <나>에 진실성이 있다는 데까지 논의가 나아가야 했는데 그 점도 많은 학생들이 잘 포착하였다고 평가된다.

‘마지막 절의 미덕’을 ‘예술은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적은 학생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것은 미덕이라기보다는 예술관(또는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인바, 문제에 쓰인 어휘의 범주에 맞추어 답안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 2]에서는 언더도그마의 하위요소들을 <가>의 인물들에 대응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의 대답이 엇갈렸다. <다>를 유심히 보면 언더도그마에는 ‘언더도그, 오버도그, 쟁점, 판단자’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가>의 일화에서는 ‘농부(언더도그), 대승(오버도그), 쟁점(소는 싸울 때 꼬리를 안으로 넣는가, 밖으로 빼기도 하는가), 판단자(마지막 절)’로 대응된다. 이렇게 판단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한편의 학생들은 ‘농부를 언더도그’, ‘마지막 절’을 ‘오버도그’로 놓고 독자를 판단자로 놓기도 하였는데, 이는 언더도그마의 개념을 부적절하게 대응시킨 것이라 하겠다. 서사 구조 상 마지막 절은 대승과 농부의 주장 사이에 낀 존재이자, 농부의 ‘소는 꼬리를 절대로 밖으로 빼지 않는다’란 주장에 순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술 인문계열 2번 문항은 ‘두 지문의 대립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두 지문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가’를 묻은 것이라 하겠다. <가>와 <나>에서 보이는 참여한 대립적 사실, <가>와 <다>에서 보이는 둘의 유사성 포착, 그것을 묻은 것이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힘은 두 사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서 길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면서 좋은 책들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란 권유를 드린다.